

2/10/19

설교 제목: 하나님의 간섭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6 장 1-14 절

- (에 6:1)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절관주** 에 2:23, 에 10:2
- (에 6: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절관주** 에 2:21, 에 2:22
- (에 6:3)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절관주** 갈 6:9
- (에 6:4)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절관주** 에 5:1
- (에 6:5)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 (에 6: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 (에 6: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 (에 6:8)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가져다가 **절관주** 왕상 1:33
- (에 6: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절관주** 창 41:43
- (에 6: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 (에 6: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 (에 6:12)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 (에 6:13)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 (에 6:14)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모든 일에, 특별히 나의 소소한 일까지 다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서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시는데 반해 에스더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당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더서의 크라이맥스입니다.

(에 6:1)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의 초청으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 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부르지도 않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섰던 왕후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어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덕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무척이나 조심합니다.

그리하여 잔치 때에도 다른 말은 일절 아니하고 그냥 왕과 하만을 즐겁게 만드는데만 집중했습니다.

내일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왕에게 하만의 모든 계략을 이야기하고 그 계략을 막아야 합니다.

내일 왕이 왕후인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하만 역시 왕의 깊은 신임을 받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날 밤 하만과 그의 친구들은 모여 모르드개와 전 유다인을 처형하고자 모의하였으며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개는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신하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역대 일기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일지 방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실 수도 있었고, 산책을 할 수도 있는데 하필 역대 일기를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역대 일기 중 하필 모르드개의 공적에 관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에 6: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에 6:3)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십니까?

아하수어로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게 한 것, 신하가 역대 일기 중 모르드개의 공적 부분을 읽은 것 등등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하수어로 왕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간섭하심이 없다면 모르드개는 그 밤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모르드개를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적 손길이 간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의식하지 못했을 지라도 그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꼭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역사란 표면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에 의해 연출되는 다양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여지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역대 일기를 듣는 중에 '우연찮게' 왕의 측근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다 모르드개에 의해 발각돼 고발당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모르드개에게 아무런 시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모르드개에게 아무런 시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왕은 아침 일찍 신하를 찾는데 마침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개를 처형하는 건에 대한 재가를 받고자 당도해 있었습니다.

(에 6:4)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에 6:5)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에스더서 저자는 하만이 아침 일찍이 모르드개의 처형 건으로 왕을 알현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의 일환임을 '마침'이라는 어휘를 통해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마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10: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 10: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앓사리온은 막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의 1/16, 지금 화폐로 환산하면 약 100 원 정도 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이라고 했으니 한 마리는 약 50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가치를 지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임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웃지도 못할 촌극이 벌어집니다.

(에 6:5)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에 6: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에 6: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에 6:8)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에 6: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웃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교만할대로 교만해져서 왕의 의중을 곡해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왕이 그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신일 것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서슴없이 말합니다.

(에 6: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은 하만의 건의를 흔쾌히 승낙하고 하만에게 그가 제안한대로 당장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임”을 외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만은 굴욕과 수치를 참으며 왕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입니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섭리적 개입은 하룻밤 사이에 역사의 흐름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왕의 살해 모의 적발 사건 당시 모르드개는 왕의 무관심에 일말의 서운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때 아하수어로 왕이 왜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 깊이 묻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하만에 의해 학살의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이 이제 아하수어로 왕에 의해 회복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에 6:12)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에 6:13)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으로부터 그 사건을 전해들은 지혜로운 친구들과 아내는 일의 결국이 모르드개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직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입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저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서둘러 진행시키고 계심을 말합니다.

(에 6:14)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는 특별하고 각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치러 어렵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모른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르드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요동하지 말고 모르드개와 같이 무한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